



농촌진흥청, 가뭄폭염 대응 농작물 현장 기술지원 강화

- 국립식량과학원장, 12~13일 전남광주특별시·경남서 벼·가루쌀·밭작물 생육 점검
- 용수 확보·병해충 예찰·작물별 관리 강화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당부

※일시 및 장소: 2026. 8. 12.(수)~ 13.(목),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 도천리, 경상남도 하동군, 사천시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8월 13일까지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과 경상남도 하동군·사천시의 농업 현장을 찾아 가뭄과 폭염에 따른 농작물 생육과 물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했다.

8월 6일 기준 경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558.1밀리미터(mm), 저수율은 36.8퍼센트(%)로 평년의 각각 59.5퍼센트(%), 51.1퍼센트(%) 수준이다. 단감과 벼 등을 중심으로 1,538헥타르(ha)에서 생육 저하 피해가 집계돼 농업용수 확보와 작물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.

농촌진흥청과 관계기관은 하천수 활용과 지하수 우물(관정)을 개발하는 등 긴급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 중이다. 또한 이달 초부터 5주간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며 벼멸구와 탄저병 등 병해충 예찰도 강화했다.

한편 전남광주특별시 고흥군에서는 풀무치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 대책을 가동한다. 90밀리미터(mm), 이상 비가 내릴 경우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(NCPMS) 경보를 발령하고, 재배 전 논물 대기(담수) 지도 등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.

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“가뭄과 폭염 피해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.”라며 “농가에서는 작물 관리와 함께 폭염 속 농작업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.”라고 당부했다.

붙임. 식량원장 가뭄·폭염 대응 현장 방문 계획(안)

담당 부서	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	책임자	과 장	채의석 (063-238-5200)
		담당자	연구사	전재범 (063-238-5211)
	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			



□ 목적

- 최근 가뭄과 폭염에 따른 농작물 관리와 농업인 안전 점검

□ 방문개요

- (일시) 2026. 8. 12.(수) 16:00 ~ 13.(목) 12:00
- (장소) 전남 고흥군, 경남 하동군·사천시 일원
- (내용) 작물 생육·관수 상황 점검, 폭염 대응 홍보 및 기술 지도 강화

□ 세부일정

시 간	분	내 용	비 고
14:00~16:00	120	◦ 이동(식량원 →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 1971-3)	* 이동 157km
16:00~17:20	80	◦ 벼 간척지 피해상황 점검 * 가뭄 염해, 풀무치(고흥읍 호동리)	* 전남 박인구과장
17:20~18:00	40	◦ 이동(숙소)	* 이동 17km
9:00~10:30	90	◦ 이동(숙소 →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)	* 이동 121km
10:30~11:00	30	◦ 벼 피해상황 점검 * 가뭄	* 경남 이윤숙과장
11:00~11:30	30	◦ 이동(하동 →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0)	* 이동 17km
11:30~12:00	30	◦ 가루쌀, 밭작물 재배농가 피해상황 점검 * 가뭄, 밭작물(사남면 우천리)	* 경남 이윤숙과장
12:00~15:00	180	◦ 점심 및 이동(식량원)	* 이동 166km